

함평천지 수놓을 봄꽃 흥설



함평군 나산면사무소 하우스내에 출하를 앞둔 흥설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렸다. 나산면은 겨우내 기른 흥설과 팬지꽃 등을 나비 축제장과 주요 도로변에 옮겨 심을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완도 해조류박람회에 초청합니다”

군민들 관람객 유치 ‘올인’

개막 30여일 앞두고 타지역 친척·지인 등에 초청장 보내기 운동 전개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소재로 열리는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막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도군민들이 박람회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박람회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과 지인 등에게 군민 초청장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초청장은 오는 28일까지 2만 부

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공직자가 직접 초청 대상자 주소를 적어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우편요금을 부담해 발송한다. 임업순(61·완도읍)씨는 “경남 통영시 친정 식구에게 발송할 초청장에 입장권 10장을 사 동봉했다. 완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청장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게 돼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군민 초청장 보내기 운동 열기 못 지않게 출항인 애항심도 뜨겁다. 재경 완도군 향우회·재경 금일을 향우회를 비롯해 전국 출항인들은 민 초청장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해조류박람회 기간 대거 고향을 찾을 계획이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재경 노화읍 향우회원 500여명은 박람회 기간인 다음달 26일 완도에 가서 박람회를 관람하고 체육대회를 개최를 위해 운동장 사용신청까지 마쳤다. 재경 약산 향우회원 250여명도 박람회 기간 고향에서 향우회를 열기로 하고 숙소 예약 등을 마쳤다.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관람객 유치 목표 인원은 70만명이며, 입장권 판매는 2월말 기준 40%의 사전예매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자’를 주제로 한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한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다문화 원안부부 양성교육 호응

함평군, 부부간 소통·협력 문제 해결 도움 줘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4차례에 걸쳐 다문화가정 원안부부 양성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었다.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부’ 등의 주제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부부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조용석(40·함평읍)씨는 “퇴근후 받은 양성교육이 배우자의 다른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함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부부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황윤희기자 hwang@

그림책 읽어주는 입학식 ‘눈길’

진도 조도초교 신입생 38명에 책꾸러미 선물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들려주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입학식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는 전남도 교육청 지정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진도군 조도초등학교(교장 민의식)에 초등생 9명과 유치원생 27명이 입학했다. 이날 행사는 교장의 입학허가선언에 이어 재학생 대표의 환영사, 신입생 대표의 답사, 재학생과 신입생간 상호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책날개 입학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그림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민 교장이 직접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그림책을 읽어준 후 신입생 전원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육식공룡 동지 화석, 학술 가치 커”

목포 자연사박물관 찾은 미 몬태나 주립대 교수

“육식공룡 생태·분포 연구에 중요한 자료될 것”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소장 전시하는 ‘육식 공룡알 동지 화석(사진)’(천연기념물 제535호)의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데이비드 바리치오 미국 몬태나 주립대 교수가 최근 자연사박물관을 찾아 육식 공룡알 동지 화석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육식 동지 화석은 중국 산둥 지방의 극히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고, 북미는 동지가 아닌 파편만이 발

견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 데이비드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조류의 모성애가 공룡으로부터 기원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공룡 전문가이다. 데이비드 교수는 “육식 공룡알 동지 화석은 육식공룡의 생태 및 분포, 동아시아와 북미간 층서(層序=지층을 이룬 상태)대비 연구자료에 큰 획을 그을 중요한 화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한편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09년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놓인 육식 공룡알 동지 화석을 신안 압해도에서 발견해 2년여간의 긴급 발굴 조사와 화석 피복 암석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상설 전시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해남 김 중국 간다

군, 지린성 업체와 협약

해남군 수협은 중국 지린(吉林)성 러허만 백화유한공사와 해남 김 등 수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 수협은 협약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김 등 수산물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을 비롯한 해남 수산물 수출이 본격화되면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평소 전국 최고 김 생산자인 해남김 브랜드화 및 유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김성주 조합장과 북일면 성진 영농조합협회의 적극적인 공조로 이뤄졌다. 김성주 조합장은 “중국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롯데마트 정도 크기의 백화점이 지린(吉林)성 장춘시에만 48개가 있고 각 매장에서 한국 특산물 판매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전북

순창 취약노인 돌보기 나선다

군, 소방서·우체국·요양기관 등 11곳과 업무협약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공동 대응 추진단 발족

순창군과 지역 소방서·우체국, 장기요양기관 등 11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역 취약노인 돌보기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4일 청소년센터에서 전국최초로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취약노인 돌봄 시스템 공동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날 군과 남원소방서, 순창우체국,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독거노인 응급안전(U-care) 시스템 사

업의 관리체계 구축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김승태 남원소방서장, 김영근 순창우체국장, 8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인 한승연 지역 자활센터장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독거노인의 안전된 노후생활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고, 응급안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정보 공유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조하는 체계로 전환, 독거노인의 위급 상황 발생시 상호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독거노인 돌봄을 추진하는 기관 별이 각기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공동대응 추진단 구성에 따라 독거노인의 독거사(獨居死) 예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전주시, 11일 최불암씨 초청 ‘열린시민강좌’

전주시는 11일 오후 1시 40분 시청 강당에서 텔러 최불암의 ‘연기 인생 40년 문화이야기’로 시작으로 연중 ‘열린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열린 시민강좌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유명 강사를 초청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시청 강당에서 진행된다. 11월 종강식에서는 11회 이상 출석한 시민에게 수료증도 교부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새로운 전문지식과 교양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열어 오고 있다. 문의(063-281-2239)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적극 홍보

남원시가 을 하반기 대안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계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환경과 직원과 환경관리원 등 100여 명이 매일 출·퇴근 시간에 농협 오거리를 비롯해 시청 주변, 도통 4가 주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상습 불법투기 지역 15곳에는 불법투기 금지 입간판을 설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 방식을 기존과 달리 가연성(소각용)과 비가연성(매립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팔덕면 주민센터 이전 개소

순창군 팔덕면 주민센터가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옛 팔덕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이달 준공됐다. 팔덕면 주민자치센터는 유남수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25명, 고문 3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이달부터 요가, 노래, 시조교실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남수 위원장은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유와 나눔의 미덕을 제공하겠다.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꾸어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민행동, 방사는 방재대책 현안 점검 토론회

해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공동대표 도의 스님·유성기·조성기)은 5일 고창신협 2층 회의실에서 방사는 방재대책 등 현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모심)와 살림연구소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지원장)의 ‘2014년 방사는 방재대책을 점검한다’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원전 관련 현안들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창=윤창희기자 cy0370@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탐방 ‘지리산 둘레길’ 흥이 절로

남원시, 길 안내·주변역사 소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야기꾼은 남원시가 주최한 ‘지리산 둘레길 아카데미’를 수료한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길 안내는 물론 둘레길 주변에 가득 담겨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들은 둘레길의 숲을 이루는 나무와 식물에 대한 지식, 둘레길 주변 마을 역사,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 등을 탐방객에게 들려준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야기꾼 프로그램은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가족과 단체, 주5일제 수업으로 주말 자연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접수는 남원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namwon.go.kr)에서 관광가이드·관광안내 예약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063-620-6163) 한편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을 둘러싼 3개도(전북·전남·경남), 5개 시·군(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21개 읍·면 120여개 마을을 잇는 274km 길이의 장거리 도보길이다. 각종 자원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과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마을길 등을 원형으로 연결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한바탕 전주 체조교실’ 전주시청 직원들이 업무 시작전에 시민들에 대한 친절 마인드 함양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 제작한 ‘한바탕 전주 친절체조’를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